



제 82 호

경상북도 의회소식



council.gb.go.kr

열린정무현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Gyeongsangbuk-do Council News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2014. 4. (제268·269회 임시회)



의성 상수유 마을(의성군 시포면 화전리)

제269회 임시회

도정·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 정책대안 제시 의장·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민생관련 안건 처리



제9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이시하 의장이 제269회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269회 임시회는 의장 및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경북도정 및 도교육 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이 있었으며, 의원발의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민생관련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세부일정은 3월 20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5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

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는데, 나현아(의성) 의원, 김명호(안동) 의원, 광광섭(고령) 의원, 이시하(문경) 의원, 김희수(포항) 의원이 각각 도정질문을 했다.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원발의 안건인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비롯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각종 안건 등 총 15건을 심사하고, 4월 3일 오전 11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

제268회 경북도의회 긴급 임시회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

경상북도의회는 2월 20일 경상북도지사가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2월 25일 1일간 제268회 긴급 임시회를 개최했다.
제268회 임시회는 2월 17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별표 중 포항시 "나" 선거구 부분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포항시의회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와 비교하여 상·하 60%의 편차범위를 벗어나므로 재의요구한 것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재의요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경북도지사는 임시회 집회요구 및 재의 요구안을 2월 20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에서 포항시 "가" 선거구(흥해읍) 기초의원은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고, 포항시 "나" 선거구(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기북면)는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

차례	지면안내
화보 의성 산수유 마을(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1면
의정소식 / 의정만평	2~3면
기획특집 -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입장	4~5면
건강칼럼 봄철의 불청객, 알러지성 비염 / 박태우 한의원 원장	
특별기고 창의력과 주도적 자세를 통한 지방 경쟁력 제고 / 장순홍 한동대학교 총장	6면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보건복지·문화환경· 농수산·건설소방·교육 위원회활동	7~13면
도정질문 / 5분자유발언 도정질문 : 나현아·김명호·광광섭·이시하·김희수 의원 5분자유발언 : 정영길·장세현 의원	14면
제269회 임시회 주요처리안건	15면

의정만평



의회사무처, '우리 땅 독도, 독도 영유권 문제의 본질' 세미나 도의회 비회기 기간, 제12회 'Mini 민의의 전당' 개최



송휘영 교수는 강연에서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일본이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했던 일본 고문서의 기록과 울릉도, 독도 도항을 금지했던 역사적 사실 등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의회사무처(처장 이태암)는 3월 1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송휘영 영남대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를 초청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제12회 Mini 민의의 전당'을 개최했다.
이날 강연은 최근 일본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에 정부대표를 참석시키는 등 우리 영토인 독도를 구제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에서는 지난 2월 20일 일본의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이태암 사무처장은 "비회기 기간에 개최하고 있는 'Mini 민의의 전당'을 통해 직원들이 사회·경제,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업무 향상을 위해 민의의 전당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9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 이시하 의장 선출

의회운영위원장에 김희수(포항) 의원, 문화환경위원장에 박기진(성주) 의원

경상북도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에서 이시하(문경)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경상북도의회는 4월 3일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 등 안건 15건을 처리하고, 송필각 의장이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의원직을 사직함에 따라 의장선거와 함께 공석인 의회운영위원장 및 문화환경위원장의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의회운영위원장 선거에서는 김희수(포항) 의원이, 문화환경위원장은 박기진(성주)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말분(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다.

이시하 의장은 보궐선거에서 재적의원 56명, 출석의원 45명 중 38표의 지지로 의장에 당선되었다.

김희수 의회운영위원장은 출석의원 41명 중에서 38표, 박기진 문화환경위원장은 36표를 얻어 각각 위원장에 선출되었다. 🏠



의장·상임위원장 인터뷰

도민화합과 경북 웅비 위한 신뢰 의회 정착

이시하 경상북도의회의장



“제9대 후반기 남은 기간 의회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이 순간 당선의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 어깨에 무거움을 느낍니다.”라고 이시하 의장은 당선 소감을 밝혔다. “지금은 박근혜정부 출범 2년째를 맞아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때입니다. 특히 올해는 경상도 개도 700주년과 신도청 시대 개막,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어려운 서민경제난 극복 등 300만 도민의 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웅도 경북의 100년 대계를 든든히 놓아야 하는 매우 역사적인 한해입니다.”라고 밝히고, “저는 비록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은 짧지만 이러한 시대적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데 미력하나마 신명을 다 바쳐 열심히 일하며, 겸허한 자세로 마음을 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도민과 소통하여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님 한분 한분이 도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그래 왔듯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와 의원님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9대 의회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동료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선인사를 했다.

이시하 의장은 덕수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문경초등학교·점촌중학교 총동창회장, 점촌청년회의소 특우회장, 경상북도의회 제6대, 제8대, 제9대 3선 도의원이며, 제8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제8대 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제9대 도의회 구제친선의원맹 회장을 역임했다. 🏠

도민 행복위한 화합과 소통, 선진의회 구현

김희수 의회운영위원장

김희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기획경제위원 등 경협을 인정받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이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3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선의 목표로 하는 생산적인 의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선진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현안사항을 협의 조정하며, 동료의원들의 고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의회운영위원장은 포항1대학 졸업, 사)포항시 새마을회장, 한구해양소년단 경북연맹장, 포항시 축구협회·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



풍성한 결실 위한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

박기진 문화환경위원장

박기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농수산위원 및 동남권구제신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2012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 등을 거쳐 현재 문화환경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의회 사회안전망 정책연구회’를 맡아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근절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앞장서고

있을 뿐 아니라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의 예산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이날 박기진 위원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제9대 의회가 얼마남지 않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제9대 도의회의 결산과 멋진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견제와 감시 통해 민주적인 경상북도의회 구상

김말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말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집행부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자세에 충실을 기하며,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위원들의 중지를 수렴하여 더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만드는데 전력하겠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여 제10대 의회로 원활히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말분 부위원장은 경주위덕대학교를 졸업하고, 한나라당 경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포항시여성단체후원회 부회장, 한구걸스 카우트포항지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제9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



기획특집 -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2013년도 정책연구위원회 입법정책 워크숍

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과제와 의정활동 방향

2013. 2. 1(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 앞장

균형발전·사회안전망·임업발전·자연공원생태 연구회 활동 통해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제시

현장 중심 의정활동, 도민의 소리 적극 반영 미래 지향적인 정책연구 활동에 역량 결집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현)는 경상북도의회의 대표적인 입법정책 개발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2년도 조례지원 38건, 2013년도 조례제정 51건으로 134% 성과를 올렸고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한 정책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책연구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은 상임위원회가 다루기 힘든 현안과 제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현장분석과 학술적 연구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조례안까지 마련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의 구심적 역할을 톡톡히 해 나가고 있다.

향후 제10대 경상북도의회에서도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를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소리를 의정에 적극 반영하고, 연구하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연구 활동에 더욱 더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2013년 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활동은 도정발전과 의원입법 및 정책대안 개발 등의 입법정책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세현 위원장 등 19명(도의원 15명, 외부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여 연구활동을 위한 워크숍 등 5회를 개최하여 도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주요 세미나는 2013년 2월 1일 제2별관 세미나실에서 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과제와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로 경북의 새천년을 열어갈 신도청시대를 맞아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의회역할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2013년 9월 25부터 26일 이틀간 사천시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및 지방의원 보좌관제도현황과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전문성 등 정책역량 강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밝혔다.

2013년 12월 9일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정기총회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장세현 위원장 등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주요안건으로는 2013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2013년도 자연공원생태연구회(대표 서정숙)를 우수연구단체로 선정, 2014년 의원연구단체 산림산업발전연구회(대표 김기홍)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 2014년 정책연구위원회 활동계획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고 정책연구위원회 한해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했다.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소속 4개 의원연구단체 55명으로 구성되어 균형발전연구회(대표 박진현 의원), 사회안전망연구회(대표 박기진 의원), 임업발전연구회(대표 김기홍 의원), 자연공원생태연구회(대표 서정숙 의원)로 분야별 연구활동을 위한 워크숍 등 10회를 개최하여 도민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균형발전연구회

균형발전연구회(대표 박진현)에서는 2013년 3월 11일부터 12일 이틀간 나주시에서 혁신도시 성공과 명품화 조건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6월 27일부터 28일 이틀간 안동시에서 혁신도시 성공과 창조도시의 시사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김천혁신도시와 신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개발중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이 경북의 지역발전에 무엇보다 중요시 된다고 했다.



임업발전연구회

임업발전연구회(대표 김기홍)에서는 2013년 5월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세종시에서 국가산림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대응방안과 9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춘천시에서 산림관련 조례제정으로 효율적인 산림정책수립 세미나를 개최하여 경북산림경관의 특성과 현황 연구를 통한 경북에 적합한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며, 산림관련 조례를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안전망연구회

사회안전망연구회(대표 박기진)에서는 2013년 4월 1일 성주군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제도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7월 8일부터 9일 이틀간 사천시에서 가정폭력의 현주소와 효과적인 예방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험 가운데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자연공원생태연구회

자연공원생태연구회(대표 서정숙)에서는 2013년 1월 17일부터 18일 이틀간 광주에서 무등산 국립공원승격 사례 발표, 2014년 2월 27일 칠곡군에서 팔공산의 가치와 국립공원 승격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연공원의 효과적인 관리는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고,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 비전과 방향,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건·강·칼·렘

봄철의 불청객, 알러지성 비염



박태우 원장
(박태우 한의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고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꽃가루 알러지를 가진 많은 분들이 콧물, 재채기 등 알러지성 비염으로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비염이란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및 코막힘증상을 가지고 있는 코의 염증성 증상이다. 크게 급성비염, 만성비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급성은 감기로 볼 수 있으며 만성은 대표적인 것이 알러지성 비염이다.

알러지성 비염은 특정물질이 콧속으로 들어왔을 때 민감한 반응을 일으켜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좋은 치료법은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을 줄이고 몸의 기초 면역을 향상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과도한 학업에 지친 학생들의 경우, 환절기에 알러지성 비염에 쉽게 노출되는데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하여 재채기, 콧물 등의 비염 증상뿐 아니라 두통이나 수면 부족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알러지 증상이 시작되면 끊임없는 재채기와 콧물

로 인해 코를 지속적으로 풀거나 재채기로 인하여 두통도 호소하며 하루종일 휴지를 달고 산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다.

기본적으로 알러지를 차단하기 위해 꽃가루가 심한 날은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사용하여 꽃가루, 미세먼지, 황사로부터 코점막을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일교차가 심한 날은 온도변화에 코가 적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챙겨 입는 것이 좋다. 환경적 요인 말고도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몸 상태를 최적화시켜야 한다. 즉 기본적인 면역을 증강시켜 몸이 외부변화에 민감하고

에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면역을 높이는 방법이다. 면역을 높이는 최선은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하여 몸속의 노폐물을 땀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운동은 1주일에 3회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며, 땀이 날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비강에서 땀을 내며 운동을 할 경우, 코를 보호해 가면서 운동할 필요성은 있다.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 얼음 등 차가운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차가운 곳에 앉아 있거나 찬 기운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좋다.

한의원에서는 생활 속에서의 치료 및 면역 증강뿐 아니라 침과 뜸으로 혈자리를 자극하여 코의 상태를 개선하고 레이저침을 통한 무통증의 치료도 하고 있다. 또한 코와 기관지를 좋게 하는 과립형 한약, 기초면역을 증강시키는 과립형 한약 등을 이용하여 코가 건강해지는데 활용하고 있다.

알러지성 비염 등 모든 비염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몸이 약해져 있다고 느낄 때 피로가 쌓여 힘들다고 느낄 때 발생하기 쉽다. 치료와 더불어 충분한 휴식 및 영양, 스트레스를 멀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태우 한의원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339 ☎ 053-322-3515

창의력과 주도적 자세를 통한 지방 경쟁력 제고

장순홍 한동대학교 총장



세계적인 철강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지난해 무디스, 피치 등의 국제신용평가사는 국내에서 최고의 신인도(AAA)를 인정받는 조강생산량 기준 국내 1위, 세계 5위의 철강업체 포스코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

이에 포스코는 철강사업 본원 경쟁력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사업구조 효율화와 재무구조 개선, 경영 인프라 혁신의 4대 혁신 추진과제를 제시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굴지의 기업이 어려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경기 침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흔히 지역경제 침체의 이유로 크게 일자리 감소, 교육여건 후퇴, 인구 감소, 지방분권 미흡을 꼽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재량권 및 정책 수단 확대, 지자체의 주

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의 장려, 민관협력 프로그램 확대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 지역금융지원법 제정, 지역별 거점대학 집중 육성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주요 해결책으로 삼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진정한 지방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창의력이 중요하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문제점과 필요를 가장 잘 알기에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

안해야 한다. 중앙이나 지방이나의 문제보다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시대인 것이다.

권한을 요구하기 이전에 중앙 정부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건의할 수 있는 창의력과 기획력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창의융합시대에서 진정한 권한은 주인의식을 가진 적극적인 사람,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에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패션섬유 도시로서 각광을 받았

의류시장은 팔아도 남는 것이 별로 없는 포화된 시장으로 항상 인식되어 왔지만 이러한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문제점을 연구해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혁신을 일으킨 '창의력'이 승부수였다.

늘 레드오션으로 여겨지던 의류 시장에서 글로벌 파고를 이겨내고 기업이 정신과 혁신으로 창조경제를 달성한 정신이 대구에서도 빛을 발하여 다시 한 번 세계적인 섬유패션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학 총장으로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한동대학교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지성인들의 집단으로서 타인과 지역 사회를 돕겠다는 '사랑'과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창의력'을 갖추으로써 대한민국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사업 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이 시대 대학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공부만 시켰던 대학들이 직접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믿는다.

중앙 정부 또한 지자체에 일방적인 지침 전달만을 하기보다 지자체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는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직면한 지역의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탐구한 지자체의 독자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대학의 인력과 연구력, 중앙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차원의 지원 3박자가 어우러진다면 대한민국 창조경제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질 것이다. 🍀

지자체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한다

던 대구가 옛 명성을 되찾기에 나섰다. 국내 섬유산업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한다.

섬유박물관과 다목적홀, 관련 연구소와 기업 등이 입주할 비즈니스 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섬유마케팅과 비즈니스, 문화, 관광이 융합된 공간으로써 하드웨어가 구축되고 있는 데 더하여 소프트웨어적인 요소도 잘 갖추어 국제적인 허브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전세계적인 SPA 브랜드로 자리 잡은 유니클로와 자라(ZARA)의 소프트웨어를 벤치마킹하여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자라가 전세계 패스트 패션 브랜드 1위의 기업으로, 유니클로는 일본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원하는 1위의 기업으로 자리잡은 성공 비결은 소비자의 빠른 기호 변화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을 저가에 출시하는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도민과 함께하는 활발한 의정활동, 신뢰받는 도정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침탈 강력 대처

제268~제270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 조정, 협의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25일 제26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17일 제26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행정부의 재의요구의 건 처리를 위해 당초 협의된 바 있는 제268회 임시회 회기협의의 건을 조정 협의하고 제268회 임시회를 제269회로 회차 변경 협의했다.

또한 3월 20일에는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68회 임시회에서 협의된 바 있는 제269회 회기협의의 건을 재조정 협의하고 제270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을 처리했다.

그리고 4월 3일 경상북도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6.4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으로 공석중인 의회운영위원장에 김희수(포항시2) 의원을 선출했으며, 이어 계속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김달분(비례대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4차 정기회 개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2014년 3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회의실에서 제14

도민에게 희망과 용기 주는 생산적 의정활동 행복한 경북 만드는데 온 역량 결집

차 정기회를 개최하여 일본의 위안부 부정 및 역사 왜곡망언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 경남도가

제안한 대우조선해양(주)의 해외 배각 반대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

1. 2.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면
3. 경북도청 신청사 현지확인



기획경제위원회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조례안 등 현안사항 심사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제269회 임시회를 맞아 3월 20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기획조정실 소관의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의결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현행 조례가 자치법규의 공포 및 주민의 조례 제정, 개폐 청구에 관한 절차만 규정되어 있고 자치법규 운영에 필요한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등은 미비 되어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주요 내용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에는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도록 하며 입법예고 기간과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예고문 작성 시 전문가들도 알기 어려운 용어를 주민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입법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자치법규를 입법한다는 것이다.

1. 2. 기획경제위원회 조례안 심사·의결
3. 중소기업체 생산공장 현지방문



도민과 함께하는 활발한 의정활동 전개 행정수요 능동적 대처 도민목소리 도정반영

도민 참여 활성화 위한 자치법규 입법 조례안 의결
입법의 투명성을 높이고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

도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에는 연서하여야 할 도민의 수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신속한 도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연서 도민의 수는 19세 이상 도민 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하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도보에 게재된 날로 하며,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도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로 한다. 다만,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권리보호 뿐만 아니라 권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정보복지위원회 활동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심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 지정, 장애인 자립지원



산을 매각·청산 후 재산의 환가대금에서 배당을 받는 금전의 처리방법을 공탁에서 예탁으로 개선한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택 취득세를 인하 및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 인상 등을 반영한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청이전에 따른 도청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관 종사자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회의를 주재한 행정정보복지위원회 채옥주 위원장은 “9대 후반기 의회 막바지이지만, 상임 위원들과 함께 민생 현안을 챙기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개조 등 시설개선 요구

행정정보복지위원회 나현아 의원은 제269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도청 신도시 이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변 시·군의 인구이탈, 빈부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낙후된 인근 시·군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을 신도시 주변 동반성장은 물론 농업인구 비중이 높고 신도청과의 접근성, 저렴한 지가 등 최적의 입지인 의성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노인 학대와 자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 보호전문기관과 공동생활가정의 추가 건립을 촉구하였으며, 경로당 재래식 화장실 개조와 2층 경로당의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

제9대 후반기 의회 막바지... 민생현안 챙기는 의정활동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례안 등 현안사항 심사

행정정보복지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3월 20일에 제269회 임시회 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용 의원(영양)은 도내 등록장애인이 168,836명으로 이들 중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35,429명에 이르고 있으나, 그 가운데 도내 33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는 장애인은 971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이 낮고 홍보가 부족하여 생산품 판매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2013년 기준 경상북도 127개 부서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 평균은 0.3%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을 경상북도와 산하기관, 투자·출자·출연기관으로 정하고 구매목표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판매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유통체계, 홍보, 기술지원, 마케팅 등의 지원과 도내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용 의원은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식과 자립생활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밖에도 집행부 제안 조례로 압류재산의 매각·청산 후 발생한 ‘교부금전’ 채납자의 압류재



1. 사회복지시설 현자방문

2·3. 행정정보복지위원회 회의장면

문화환경위원회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조례안 심사

문화환경위원회는 제269회 임시회 기간중 3월 20일(목) 1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을, 1건은 보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본회의 종료후 곧바로 시작된 상임위 회의에서 먼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환경 조성 및 장기기증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임산부'와 '장기기증자'가 경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주차료·관람료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2건 모두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채옥주 의원이 발의하고 김명호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찬성한 조례안으로, 2013년 12월말 기준 경북의 잠정 출산율이 1.38명(전국 1.19명)으로 임산부가 약 22,200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장기 기증자는 36,715명(전국 1,030,177명)으로 전국 대비 3.6%의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현실을 감안하



1. 상임위 조례안 심사·의결
2. 경상북도 수목원 및 도립공원 현장확인
3. 산림소득 시책 연구



'임산부'와 '장기기증자', 도내 공공시설 이용 활성화 기대 '수목원'의 체계적·효율적인 관리·운영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저출산 문제 극복 위한 출산환경 조성, 장기기증 사회적 분위기 확산 위한 노력

여 제안한 것으로, 이는 지난해 4월과 9월부터 각각 개정 시행중인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등이 임산부와 장기기증자가 경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

설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관람료·주차료 및 시설물 사용료 등을 감면토록 한 규정을 반영하였다. 위원회는 위 두 조례가 시행되면 도내 "임산부"와 "장기기증자"의 도내 공공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의결

위원회는 또한 김기홍 의원이 제정 발의한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맑고 깨끗하고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요구하며,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삶의 질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상위 법령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동 조례안은 수목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수목원내 보존구역 설치, 수목원의 자원과 각종 전시물의 공개에 따른 개원일과 휴원일, 수목원의 입장 및 관람 제한사항 및 수목원내 행위제한 사항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두고 있다. 경상북도수목원은 지난 2001년에 개원하여 2012년 9월에 국립수목원으로 등록했으며, 지난해말까지 366만여 명이 방문·이용하는 등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원활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동 조례안을 제정하여 '경상북도수목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도민들의 심신휴양과 힐링, 청소년들의 자연체험 교육장으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장경식 의원이 개정 발의한 '경상북도 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도립예술단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좀 더 충분한 논의와 보완을 거치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했으며, 나머지 3건은 지난 4월 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농업인 소득 향상 도모와 FTA 교역 확대 및 이상기후 변화 대비 효율적 예찰·방제 추진, 민간차원의 '독도 수호의지' 강화

조례안 등 현안사항 심사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상진)는 3월 20일 제 269회 임시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다. 한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 및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했다.

강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의하여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했다.

장경식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용복 재단' 현 명칭이 특정인에 한정되어 포괄적인 독도수호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독도 수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시스템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독도재단'으로 변경하였고,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산부의 복지 증진을 통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장기 등 기증 확산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및 장기 기증자가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을 방문할 경우 관람료를 면제하도록 개정했다.

체계적인 AI 방역대책과 닭고기 소비 촉진 노력으로 어려운 양계농가 조속한 복구에 최선의 노력 당부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상황 보고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의원사무실에서 농축산국장으로부터 최근 경주 양계 농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위원들은 도내 AI 발생현황 및 방역대책 추진 상황과 향후계획을 확인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닭고기 소비촉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어려운 양계 농가가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1. AI 발생 및 대책 추진상황 보고
- 2. 농수산위원회 조례안 심사
- 3. 양계농가 현장 의견청취

건설소방위원회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옥)는 3월 20일 제269회 도의회 임시회 개최전에 건설소방위원회사무실에서 도본청 간부들과 함께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소방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전격 방문하여 산불, 해빙기 안전사고, 화학사고 등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발생한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소방분야 해빙기 대형 재난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관리를 당부하기 위한 자리였다.

해빙기는 겨울 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 발생, 노반침하, 시설물 붕괴 등 대형사고의 발생우려가 큰 시기인 만큼 세밀하고 철저한 안전점검이 요구된다.

이날 위원들은 해빙기 각종 대형공사 현장,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물 등을 집중관리하여 불안요인을 사전에 발굴, 조치해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



1.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긴급 방문
2. 건설소방분야 당면 현황 보고
3. 농암-신양간 도로건설현장 방문



도민이 체감하도록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속도감있는 의정활동 전개 '문화+역사' 어우러진 첨단명품 신도시 등 차질없는 사업추진 당부

재난사고·인명피해 제로화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 당부 농아인 등 신고 대비 대응인력 확보에 최선 당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도본청 간부들로부터 건설소방분야 '문화+역사'가 어우러진 첨단 명품도시로의 탄생을 위한 도청이전 추진상황, 남부권신공항 추진, 국민행복시대와 연계한 도시재생 및 생활형 확충, 새마을운동테마공원건립 추진상황, 해빙기 대비 각종 시설물 점검과 대형산불 및 대형 재난재해 대응태세 등에 대한 당면 현황을 보고 받았다.

재난재해 대응태세 점검

이어 위원들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119종합상황실장으로부터 긴급 주요상황 발생시 상황 접수·전파·출동, 진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 현황보고를 받고 위원들은 산불, 해빙기 안전사고, 화학사고 등 대응체계에 대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을 청취·의견을 교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두옥(포항시) 위원장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긴급 주요 상황발생시 상황 접수·전파·출동, 진화 등 대응체계 구축에 대하여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홍진규 부위원장(군위군)은 본격적인 산불발생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소방차 출동, 시군 산림부서 협조, 소방헬기 지원, 의용소방대 동원 등 상황발생에 따른 대응체계를 재점검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특히,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현장지휘체계 확립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당부했다.

이시하 의원(문경시)은 농아인 등이 신고시에 대비하여 수화 위탁전문교육을 강화토록 하는 등 대응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창욱 의원(구미시)은 최근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데 경북도내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단 한건의 화학사고도 나지 않도록 하고, 화학사고시 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매뉴얼 숙지 등 현장대응을 완벽히 하여 인명사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왕식 의원(의성군)은 도청이전과 연계하여 119긴급구조표준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신청사 이전시 119구급차 공간 확보 등을 꼼꼼히 챙겨 차질이 없도록 요구했다.

한편, 건설소방위원회 장두옥(포항시) 위원장은 "얼마남지 않은 임기이지만 건설소방위원들과 함께 항상 도민이 체감하도록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속도감있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6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활동

경상북도 교육상 포상대상 범위와 인원 확대 시행 교육감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마련

경상북도교육상 포상, 교육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감 가지고 최선 다해줄 것 당부

조례일부개정 등 현안사항 심사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3월 20일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구자근 부위원장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직 교육자에게 매년 3명 이내'의 인원에 대해 포상하던 것을 '경상북도 교육관련기관에서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

한 사람으로 매년 4개 부문 6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당초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교육행정 4개 부문 4명 이내로 발의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분야에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6명까지 수여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했다.

또한 수상자로 선정된 사립학교 및 퇴직 교직원에게 수여할 수 있는 상금은 공직선거법과 관련되어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전·현직을 막론하고 모든 수상자에게 상금은 지급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경상북도교육상 조례의 개정으로 사립학교 및 퇴직교직원도 포상대상에 포함이 되어 이들에 대한 사기양양은 물론 퇴직이 임박한 교직원도 교육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상자에 대한 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3. 4. 5. 법률 제11724호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에 설치할 수 있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교육감 당선인이 확정되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교육감 당선인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며 활동기간은 교육감 임기 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비품·통신·차량 등의 지원과 자료·정보 또는 의견 제출 및 예산지원도 가능하며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는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김수용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를 빌미로 현안심사를 대만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로써 다음 회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6월 10일 부터 19일 기간중에 열릴 예정이다. ☎



1. 공유재산관리실태 현장점검
2. 교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의결
3. 관광명소로 개발예정인 폐교를 방문, 의견청취



도정질문

도 산하기관의 도청 신도시 이전은 균형발전 부작용 초래

나현아 의원 (의성2)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나현아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속 기관 및 사업소의 도청 신도시 이전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변 시·군의 인구이탈, 빈부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낙후된 인근 시·군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농업기술원과 농업자원관리원을 신도시 주변 동반성장은 물론 농업인구 비중이 높고 신도청과의 접근성, 저렴한 지가 등 최적의 입지인 의성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노인 학대와 자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생활가정의 추가 건립을 촉구하였으며, 경로당 재래식화장실 개조와 2층 경로당의 시설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 교육청에 대하여는 최근 4년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심의 해제율이 평균 63%에 달하고 시·군별 편차도 크다는 점,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공통된 심의해제 기준과 지역별 편차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캐나다 FTA 대책 및 안동 '강남중학교' 신설 촉구

김명호 의원 (안동2)



그간의 모든 FTA와 마찬가지로 '한·캐나다 FTA' 역시 농·축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하고, 캐나다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부과되던 40% 수준의 관세 철폐시 축산농가는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축산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축산강국과의 FTA를 서두르는 것은 축산농가를 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FTA 초과이익공유제법' 통과 등 경북도가 축산농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조속히 마련·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안동시 강남동에 공립 남녀공학 <강남중학교>를 하루빨리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 강남초등학교는 안동에서 최대 규모이고, 지역의 중학생수가 622명으로 19개 학급에 달하는 규모인데도 중학교가 없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학교용지가 아파트용지로 둔갑했음을 지적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도비 지원 및 교통복지 수준 향상 대책 촉구

곽광섭 의원 (고령)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년 8월부터 지자체 세외수입 규모가 줄어들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되므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에 많은 차질이 생길 것이고 도·농간 교육 불균형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면서, 교육경비 보조 관련 법령은 불합리하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고 도는 농촌의 어려운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별로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교통약자가 전체 도민의 30%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상버스 도입률(4%)은 전국 평균(16.4%)에 크게 못 미치고, 장애인콜택시는 법정 보유대수가 197대이나 현재 58대만 운행되고 있는 등 도내 교통복지 수준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도 차원의 교통복지 수준 향상 대책을 촉구했다.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전반적인 문제점 지적

이시하 의원 (문경1)



2015년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가 2010년 8월 당초 기재부에 제출한 총사업비 538억원에서 2013년 8월 수정되어 2.5배 많은 1,334억원이 증액된 1,87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국비(50%), 지방비(30%) 수익금(20%) 비율로 배분할 경우 도비는 365억원이고 시비는 197억원이나 되어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는 문경시와 경북도의 재정부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을 참여시켜 남북간의 냉랭한 분위기를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만

들어야 할 것이며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도내 수도물(상수도) 누수와 관련하여 지난 5년동안만 하더라도 거의 5천억원에 가까운 수도물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관교체사업이 절실함에도 타사업에 비해 추진이 잘 되고 있지 않는 사유와 현재 점촌5동의 인구증가로 인해 소방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나, 대책마련이 없는 실정이라서 '가칭'모전 119 안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포항에 환동해본부 조직 설치, 경북도 제2청사로

김희수 의원 (포항2)



인류가 당면한 식량·환경·공간 등의 문제는 앞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서해안은 환황해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남해안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축으로 성장한 반면, 동해안은 북한 나진·선봉, 중국 훈춘, 러시아 극동지역, 일본 서해의 광역 경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발전이 정체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제 북극항로 개통이 가시화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의 연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극동러시아 및 중국의 동북 3성 개발이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

고 그야말로 환동해가 유라시아 경제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망하면서, '동해안발전추진단'을 '환동해발전본부'로 개편하여 포항으로 이전하여 도청제2청사로 하고 이를 중심으로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실행 로드맵 마련 등 경북도 차원의 동해안 발전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빨리 울산시, 강원도와 함께 실질적인 광역연합체를 구성해 경북 동해안이 미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심축으로써 환동해 경제권 형성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

도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흡연과 연관된 35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연간 1조 6,914억원이 추가 지출되었고 이는 연간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방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은 국민행복의 장애물로서 담배 제조·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쥔 국내의 담배회사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길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건강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 환수소송을 제기한 것을 적극 지지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정영길 의원 (상주)

도 교육감에게 과밀학급 해소 강력 촉구

도내 과밀학급 27개교 692학급에, 2만3천여 학생이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어 신·증축 등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과거 한 교실에 50~60명이 넘는 학생들이 복적이며 수업을 받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3년 현재, 초등학교 학생수를 23.2명까지 낮추었으나, OECD 평균인 15.4명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도내 과밀학급 현황을 살펴보면, 도 교육청의 학급당 인원 편성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 수는 27개교에 692학급에 이르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장세현 의원 (포항)



제269회 임시회

주요 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4. 3. 10
- 제안이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입법예고, 공포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 입법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 발의자: 이상용 의원 외 3인 2014. 3. 10
- 제안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4. 3. 10
-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14. 1. 1)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 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4. 3. 10
- 제안이유: 「지방세법」시행('14. 1. 1)에 따른 주택 취득세를 인하 및 등록면허세의 정액 세율 인상 등을 반영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지사 2014. 3. 10
- 제안이유: 2014년 말 도청 이전에 따른 도청신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2014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위임규정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 경상북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채옥주 의원 2014. 3. 10
- 제안이유: 임산부의 복지 증진을 통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장기 등 기증 확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나 장기 등 기증자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하기 위한 것이다.

▶ 경상북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채옥주 의원 2014. 3. 10
- 제안이유: 임산부의 복지 증진을 통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장기 등 기증 확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나 장기 등 기증자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하기 위한 것이다.

▶ 경상북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발의자: 김기홍 의원 2014. 3. 10
- 제안이유: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경상북도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원활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발의자: 한창화 의원 외 7인 2014. 3. 10
- 제안이유: 도내에서 생산되는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및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 경상북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발의자: 강영석 의원 외 14인 2014. 3. 10
- 제안이유: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작물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이다.

▶ 경상북도 안용복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장경식 의원 2014. 3. 10
- 제안이유: 현행 '안용복재단'은 독도지킴이 안용복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민간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용복재단'이란 현 명칭이 특정인에 한정되어 포괄적인

독도수호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실제 독도 수호를 위한 민간차원의 시스템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장경식 의원 2014. 3. 10
- 제안이유: 임산부의 복지 증진을 통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장기 등 기증 확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산부나 장기 등 기증자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방문할 경우 입장료·관람료·주차료를 감면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이다.

▶ 경상북도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구지근 의원 2014. 3. 14
- 제안이유: 경상북도교육상의 포상대상 범위를 경상북도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공이 현저한 사람 가운데서 유아·특수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및 교육행정 등 4개 부문으로 구분 및 확대하여 교육상을 수여하고자 한 것이다.

▶ 경상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제출자: 경상북도교육감 2014. 3. 10
- 개정이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이 신설되어,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이다.

▶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제의자: 경상북도의회장 2014. 3. 14
- 제안이유: 자치단체가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통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운용상의 각종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2014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자 한 것이다.

KOREA
Gyeongbuk
East Sea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여행 독도

치열하게 솟아오른 독도의 암벽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리도록 눈이 부셨던 독도의 바다를 잊을 수 없습니다.
독도의 하늘을 자유로이 날던 땡이갈매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독도를 떠나오는 배 뒤로 손 흔들어주던 석양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독도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독도는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여행이었습니다.

www.dokdo.go.kr

※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독도 www.dokdo.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6. 4. 투표할 수 없다면
5. 30. - 5. 31. 사전투표하세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기간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

투표장소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

